

2021년 추수감사절 축제 5가지 감사절기.

2021. 11. 10. 수요일

강 은 희

<1> 하나님께 감사 25가지

1. 예배당 건축할 때 람임 목사님께서 건축하심 기준(안)을 내 놓으셨는데 저희 가정은 연봉의 1.2배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집은 전세금 칠천만원 (우리 돈은 이천, 원해당돈은 천천) 살고 있을 때였는데 우리집 연봉 1.2배나 하라고 기로중 불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 , 그렇지만 다시 기로하기를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건축하심 다 드리겠습니다. 건축하심 다 드리고 나면 우리 명의로 집 한칸 주세로 하고 건축하심 다 드리기 할 약 전에 저희 부부를 누구보다도 예뻐해 주시는 짐사님의 큰손으로 계약금 받고 중금으로 남동생에게 잔금은 시이모님에게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장만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천주에서 청주 사랑의 교회 평신도세미나 참석 때 주일 설교말씀을 통해 나의 영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고 참석자 간증문을 교회앞에서 간증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둘째 민지 출산 후 밤바닥 통증으로 오랜 시간 고생했는데 청주 사랑의 교회 평신도세미나 기간중에 치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목녀로 임명받고 천상 신성교회 평신도세미나 참석하기로 한 전날 허리를 삐끗해 침과 물리치료를 받고 참석했지만 여전히 불편해 강요시간에 시 있었는데 최영기 목사님의 안두기로 받고 지금까지

행위신세지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 감사합니다.

(그 전에는 해마다 한 두차례 러기 때문에 행위신세 지었음)

5. 피택권사 교육 받을 때 친정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여동생을 통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피택권사 교육 인제 & T살을 통해 내 믿음의 역사를 정리해 볼 수 있었고 친정사귀들에 대한 내용의 간증문을 써서 교회앞에서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스미어 대학 졸업 후 리컨 정로 건축 일을 할 때 지인 김사님의 소개로 전공 분야인 자급 다고 있는 직장에 취업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결혼 후 관계가 소원해진 친구나 20년만에 고향교회 친구 아버지 장로님의 소개로 인제계가 회복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 그 친구를 통해 남편 협착증 수술 이후 침 치료를 통해 뺏기기, 두기, 발가락 움직임, 다리움림, 건기가 거장님 보기에로 놀라운 정도로 회복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 홍산 이사 와서 다시 시작한 새벽 예배단원 하는 13년 동안 큰 사고없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11. 부모님을 영접 여윈. 사를 시 조카. 결혼선상에 조카사위를 십으로

초대해 김영봉과 함께 집밥을 한끼 식사를 대접했고 출산 후
거제도 신혼집에서 신부처럼하고 있어 남편과 함께 가서 손수 목욕
시켜 주고 신발 비워주고, 전가 사서 신기 무뎠을 걸려주고 옷아 휴직중인
전가 사서와 함께 외출하고 오고 보내줄 수 있는 한성나 영아같은
따뜻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5

12. 열심히, 잘 하지도 못했는데 되어가는 은혜로 2번의 분가를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 첫번째 분가 후 여자들 네명 속아서 힘드신 하는 남편을 위해
남자 목욕 보내 주시며 타고 기르하고 있을 때 함방하고 간 지금의
현황이름 김연로목자님께서 우리 상환의복장을 신장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날 한밤드님 때 그 남자의 목욕이 있을 수가 없음 ~
너무 아플다셨기 때문에)

10

14. 결혼 이후 남편의 종출원환을 대형사고가 3번이나 일어나서 차는
폐차를 했지만 물론 생활이 끊어지지 않고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 후 적정적인 아픔)

15

15. 기장에서 목산을 이사한 때 남편의 직장 산우회 집사님을 통해
기동음료로 관리 가까운 전세집을 이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과 집을 보러 갔는데 마침 다음날에 신인 집이라
사모님 말 한마디에 신대. 신박장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심)

20

16. 기장에서 목산을 이사한다고 했을 때 고함고함 최미영친사님께서

두가지를 당부하셨는데 1) 쉽하게 하지 마라 나 쉽게 하라
2) 겉지 말고 고려한 깊이 머물러 생각하라고 당부하셔
이런 권면을 해 주시는 멋진 많은 선배가 계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17.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원생활이 힘든지 느게
병상에서 같은 유신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분을 통하 않는 순간에
순간을 보는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 남편 장로 투표 한다고 사랑님게 말씀 드렸을 때 하는 다른
말씀 안하시고 하나님과 고려를 위해 더들 더 중심하라고 말씀 하시는
말씀이 부로님이 제셔서 감사합니다.

19. 학생회 (S.F.C) 여름 수려회를 가연 물동이를 하는데 중1때
수려회 기간 중 생각을 하지 않아 내 사랑에 첫 기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 중2때 고려 노성환~~학생~~님 (현재는 목사님 - 우리교회 목사 다녀가심)께서
결혼 기도를 해야 된다고 자랑께 주셔서 그 때 부러 사랑하 결혼 기도로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인 남편을 만나 가장은 이루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1. 백일 이후 생긴 아들~~이~~로 있는 고생을 한 민지가 성인이 되어서
어는 날 순간 아들~~이~~가 치루가 되어 감사합니다.

22. 승민이가 처음으로 사할때 한 달만에 어귀를 세비이나
라졌음에도 아무런 이상 없이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피아노에 잘해 되남

2) 그네에서 뛰어넘

3) 이끄는등에서 뛰어넘

23. 무릎 염증이 잦아져 수술의정을 예약했는데 생명에 지장주는 것이
아니라니 것이 깨닫아져 수술의정을 변경해 제 2차차
물리자 세비나를 삼킬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은 은혜가 있음은 믿습니다)

24. 시부모님의 랑 형님을 매마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랑 구입하면 뽕
함께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마침 그 당시 랑도 랑도 전세람을 되치
못할 사정을 우기 명어로 되어 있어 그 함을 받아 전출하람으로
주심에

다 그리고 그 랑을 매르하게 되어 랑하람 상황이 새기면서
시부모님께 사람을 고백했더니 어머니께서 '네 랑을 잘 랑했다'
하시며 하나님의 랑이라 거짓말에도 이해해 주시도 랑하람 부모님이
결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25. 우리 24가지 랑사를 적으면서 남편과 나기, 현재를 회상하며
이렇게 웃도 수 있는 자람 현재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람 상황이 잘되 랑 믿습니다)

<2> 교회 감사 15가지

1. 이사 와서 다문화공동체교회 중식 아주 14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교회안에 머물러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저희 부부를 목사, 목녀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안수집사로 권사로 섬김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평신로세미나, 목회자세미나 때마다 가장은 도통하게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은 태기로 한 부인이 덩크를 넣은 때 세미나 열심히 봉사)
5. 남편 협착증 수술을 통해 공동체 눈물의 기르타 사랑의 수고를 받아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6. 최동철 목사님 섬김말씀을 통해 사탄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천주성구들과 마음을 나누는 말씀의 동역자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8. 크리스천서도침례교회를 탕방,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9. 기르타 생공부를 통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톨릭 성제주신 최연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10. 중간 중간 쉬었던 가정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 허리아픈 남편과 낙심해 있는 자처를 쉬며 40일 작정기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간에 최연희 목사님이 각자의 기도제목으로 40일 작정기원함)

12. 천사에게 우리교회 추수감사절 감사나눔 축제를 소개해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3. 몸 해 따위인 여름 수련회 행사갔다 근로나 학습진자가 나와 교회로부터 따뜻한 사랑 받아 감사합니다

(이 때까지 영어 실 뽐내며 중에서 제일 맛 있었음)

단편 도너츠, 제국도에서 갖 올라온 생생한 감동, 성도들의 기도)

14. 승민이가 입고받은 군입대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 디딤돌목장 분가를 만들고 예비목사에게 이상 생활 할 한라를 장모해 준 타장을 일으켜 분가를 한라라니 해서 목사님께 나의 장모를 이야기할 때 영정 내리지 않고 목사님께 늘 때까지 목사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잘 받들고, 신앙을 목사 목사님으로 이해 해 주시고 동행 해 주시며 목사 받들게 도와 주셨고 저 때문에 분가는 못했기만 믿을만에서 좋은 친구,

동역자로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목장 감사 10가지

1. 특별로 시작할 감사 나눔을 번들로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교회 창건할 때 마다 성서 만민이외의 이들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3. 그러나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않는 장시영목사와 행복의 길을 하고
4에서 감사합니다.
4. 그러나 이후에로 상황에 맞게 지금까지 유지 하고 비대면, 대면
으로 복음화함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첫번째 부가할 때 라 목장에 갔던 목사가 다시 돌아 왔을 때
우리의 견해를 듣고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몇 해 전 하나님이 레봉을 큰 디해가 있을 때 우리 목사가
거주하는 아파르가 일종까지 침수가 되어 아파르 전체가 다수,
정전이 되어 힘들어 할 때 성수 22자리 24개나 밑바탕을
해 가지고 갔을 때 마침 불사나트 군부대 군인들의 도움을
15종까지 계란을 잘 전달해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7. 이남정 목사의 청정아버지 베틀세 25에 교회나 초대사공들과 목사들이
함께 문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목장 스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때 유영환 목사가 다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의 영혼 사경을 부채를 만들어 와서 성도님들에 성도님들에게 큰 사랑을 주고 풍성한 가운데 사랑을 잘 아쳐서 감사합니다.

9. 목장에서 후원하는 박주영 선교사님께서 근로나를 헌신 예배처소가 없어져 힘들어 하신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십시일반 베풀어 선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10. 천주아들리치하는 김해 순정교회도 예배처소를 옮겨야 하는 생겼는데 이번에는 목사님들이 십시일반 선교회를 주차례나 주를 드려 감사합니다.

<아멘>!!